

문제는 시스템이다

George Katsiaficas

1991년 걸프전과 현재 미국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라크민중과 원유에 대한 국제 자본의 도구화 사이에서, 이라크에 대한 신 자유주의적 이라크전쟁은, UN의 금수조치뿐만 아니라 미국이 남기고 간 수 백톤에 달하는 열화 우라늄탄의 영향으로, 백만이 넘는 생명을 앗아갔다.¹⁾ 현재 진행중인 이라크전과 북한에 대한 전쟁위협과 동시에, 부시와 그 일당들은 아프가니스탄, 필리핀 그리고 콜롬비아에서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무장시켜서 팔레스타인을 침략하고 파괴하는 것을 허용하고, 독일과 일본의 군국주의화를 독려하고 있으며, 베네주엘라의 차베스(Chavez)정권을 붕괴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부시와 그 일당들은 쿠바에 대한 수 십년간에 걸친 금수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국제 형사재판소에서 탈퇴를 하였고, 비-탄도미사일 조약과 교토의정서를 파기하였으며, 1972년 생물학 무기 조약에 대한 새로운 국제의정서를 비준하기를 거부하였다. 그들은 새로운 유전학 무기²⁾와 “병커-버스터”라는 미니어처 핵무기를 개발하고, 군사비 지출을 극적으로 인상하고 있다. 가장 불행하게도, 부시와 그 일당들은, “억제”와 “봉쇄”에 기반을 둔 수십 년 간의 정책을 대체하여, 새로운 “선제공격” 전략원칙을 채택하였다.

부시와 일당이라는 말을 언급할 때, 단순히 부시와 그 행정부를 지칭하는 것만은 아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람이 아닌 시스템이다. 비록 미국의 언론들이 미국의 정책이 나치의 정책과 다르다는 것에 대해 찬양을 하지만, 2차대전 당시 부시의 할아버지는 히틀러와 나치에 협력을 한 큰 회사 몇몇을 소유하였다³⁾. 미국인들은 독일과 일본의 과시즘과

1) 열화 우라늄탄은 극도로 높은 밀도 때문에 장갑을 관통할 수 있는 발사체에 사용된다. 펜타곤은 320톤의 방사능 무기가 이라크에 버려졌다고 인정했으나, 러시아는 1000에 육박하는 양이라고 관측한다. 방사능 무기는 걸프전 신드롬과 수천명의 인명살상 및 기형출산을 일으켰다. 한 영국 연구자는, 20세기말 전까지, 5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여기에서 나오는 방사능으로 사망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하였다. Neil Mackay의 "US forces' use of depleted uranium weapons is 'illegal'" Sunday herald, 30 March 2003(www.truthout.org/docs_03/printer_040404F.shtml)을 참조.

2) Hartmann, Thom, The Genetically modified Bomb, Common Dreams News Center, September 10, 2003,

3) Prescott Bush는 Brown Brothers Harriman의 경영 파트너였다. 장래의 미국 대통령이 될 그 18 살배기 아들 George는 해군 항공기 조종사가 되기 위해 훈련을 막 시작하였다. 1942년 10월 2일 미국정부는 그 당시 Prescott Bush에 의해 운영되고 있던 뉴욕의 나치독일의 금융기관의 압수를 명령하였다. *Trading with the Enemy Act*에 따라 정부는 할아버지 부시가 책임자로 있던 *Union Banking Corporation*를 접수하였다. 미 외국인 자산 관리청은 Union Bank의 주식증권을 압수했다. 할아버지 부시와 그 장인 George Herbert Walker가 오랫동안 경영해오던 Silesian-American Corporation의 나치소유 이자는 1942년 11월 17일 *Trading with the Enemy Act*에 의해 압수당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나치협력 미국인은 그대로 놔둔 채 나치의 이자만 압수한다고 발표를 한다. 전시에 취해진 미국의 이러한 그리고 다른 조치들은 너무 미약하고 늦은 것이었다. 대통령 부시의 일가는 히틀러와 그의 독일점령에 대한 재정지원과 무장, 중앙유럽 점령과 미국에 대항한 나치 군사업체에 대한 재정지원과 경영, 나치의 인종학살에 대한 이론제공과 인종차별적 선전이 개발에 중심적 역할을 하였다. 1942년 미국정부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부시의 친-나치 은행은 Fritz Thyssen과 그 두 형제에 의해 주도된 *Vereinigte Stahlwerke*(철강회사연합 혹은 *German Steel Trust*)와 상호 긴밀한 연관관계에 있었다. 전후에 의회조사단은 Thyssen 이들과 Union 은행회사 그리고 나치와 연관된 단체에

자신들의 차이에 대해 자축을 하지만, 파시즘과의 대결에서 자신의 우방이었던 러시아와 중국을 고립시키면서, 독일과 일본을 자신의 가장 가까운 우방으로 만들었다. 서독과 일본에서 미군정은, 미국의 군사적 경제적 통제의 구조에 병합시키면서, 파시스트 부역자들을 재 등용하였다. 보다 최근에는 대통령 Bush 1세와 James Baker같은 협력자들은, 무기와 항공산업을 매점을 특화하면서 워싱턴 정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있는, Carlyle 그룹에서 Bin Laden 일가와 연관이 되어있다.4)

누가 백악관에서 집권을 하던지, George Bush혹은 John Kerry 또는 다른 누가 되었던지, 미국의 군사주의는 오랫동안 미국의 외교정책과 경제발전의 핵심이었고 또 반드시 그렇게 존재할 것이다. 미국의회 역시 Bush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여러 가지 사안 중에서, 164개국에 의해 조인된 핵실험금지 조약을 승인하지 않았고, 모든 이슈에 대하여 Bush의 외교정책을 지지하였다. 의회의 자금지원에 힘입어, 미국은 141개국에 25만 명 이상의 군인을 파병하였고 우즈베키스탄과 타지키스탄과 같은 곳에서는 새로운 기지를 설치하거나 더 많은 병력을 주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동북아시아에서는 10만 명 이상의 미군이 무기한 주둔해 있다.

1948년 이래로, 미국은 군대와 관련하여 15조 달러 이상을 지출해 오고 있다. 이는 미국 내에서 인간이 창조한 모든 부의 화폐가치보다 더 많은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공항, 공장, 고속도로, 교량, 빌딩, 기계, 상하수도 시설, 발전소, 학교, 병원, 쇼핑센터, 호텔, 가옥 그리고 자동차의 가치보다 더 큰 것이다. 현재 펜타곤의 예산을(2002년 회계 연도, 3460억 달러) 해외 군사원조, 퇴역병 연금, NASA의 군사관련자금, 에너지국의 핵무기 예산과 과거 군비사용의 부채이율 상환 등에 포함한다면, 미국은 군사부분에 매년 6700억 달러(매분 100억 달러 이상)를 지출하는 셈이다.5) 미국의 군비예산은, 전 세계 군사비의 36%에 달하면서, 차순 15개국 군사비 지출의 합산보다 더 많다. 비록 주된 문제가 미국이지만, 전 세계 군비지출의 거의 2/3 미국 밖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남한의 군비예산이 2003년에 140억 달러를 초과할 정도로 12.7%증가하였고, 일본과 독일의 군국주의가 되살아나고 있다.

대한 조사를 하였다. 조사에 따르면 *Vereinigte Stahlwerke*은 독일 전체 생산량 중에 다음과 같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 나치독일의 pig iron의 50.8%
- 나치독일의 universal plate의 41.4%
- 나치독일의 heavy plate의 36.0%
- 나치독일 합석판의 38.5%
- 나치독일 파이프와 튜브의 45.5%
- 나치독일 철사의 22.1%
- 나치독일 폭약의 35.0%

출처: Webster G. Tarpley와 Anton Chaitkin의 *George Bush: The Unauthorized Biography*(Executive Intelligence Review, 1991년 1월). <http://www.tarpley.net/bush2.htm>

4) Andrew Wheat의 "The Bush-bin Laden Connection", *The Texas Observer*, 11/9/2001 참고
<http://www.texasobserver.org/showArticle.asp?ArticleID+480>

5) Andreas, p. 39.

한마디로 군국주의적 광기가, 국가내의 정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에 관계없이, 오늘날 세계를 재배하고 있다. 이어지는 논의에서, 이러한 병적 현상의 역사적 특징들이 고찰될 것이다.

폭력의 역사적 유형

16세기부터 시작하여, 주변부 세계는 유럽에 기반을 둔 자본주의적 세계체제로 급속하게 편입되었다. 그들이 민족국가로 이루어지기도 전에, 아메리카의 백인 유럽 정착인들은 원주민의 영토를 탈취하기 위해 대량학살을 자행했다. 수천만의 아메리카 원주민학살을 비롯하여, 유럽 식민주의자들은 그들의 새로운 제국을 설립하기 위하여 수천만의 아프리카인들을 노예로 만들었다. 노예무역에서 살상된 아프리카인 희생자의 추정치는 1500만에서 5000만에 이르고 있다. 초기부터 북유럽 정착민-식민주의자들은 생물학 무기를 사용하였다. 메사츄세츠, 뉴욕 그리고 뉴햄프셔에서 그의 이름을 따서 도시를 만든 제프리 암허스트(Jeffrey Amherst)경은 백인들에게는 무해한 방법으로 원주민들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해냈기 때문에 추앙되었다. 그는 원조를 가장하여 촌락전체를 학살하기 위해서, 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 천연두 바이러스를 함유하고 있는 이불을 나누어주었다. 미국혁명이 일어나 세기 이래로, 모든 원주민들은 체계적으로 학살되었고, 소수의 생존자들은 보호구역에 거주하길 강요당하고 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폭력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만두었는가? 불행하게도 대답은 '아니다'이다. 도시들은 아직 '암허스트'로 불리고 있고, 명문 Amherst College 근처의 고급 레스토랑 중의 하나는 오늘날 "제프경 Lord Jeff"라고 불리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백인 유럽 정착인들은 원주민들의 주된 식량자원을 고갈시킬 목적으로 물소를 말살시켰다. 1872년과 1874년 사이에 3,700,000마리의 물소가 도살당했다(오직 150,000마리만 원주민에 의함). 서부에서 정착민 식민주의가 고조될 때인 1874년부터 1883년까지, 약 800만 마리의 물소가 학살당했다. 이러한 생물학적 무기형태에 대한 죄의식은 고사하고, "Buffalo Bill"은 서커스 스타일의 "Wild West"를 미국의 동부해안에서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수년간 상연하였다.

자유라는 이름으로, 미국은 멕시코의 거의 절반을 합병하였고 루손섬에서만 600,000명의 필리핀인들을 학살했다. 1898년과 1934사이에 미 해군은 온두라스를 7차례, 쿠바를 4차례, 니카라과를 5차례, 도미니카공화국을 4차례, 아이티와 파나마를 각각 3차례, 과테말라를 한차례, 멕시코를 3차례 그리고 콜롬비아를 4차례 침공하였다. 1915년에는 미군이 농민반란을 무참히 진압할 때, 50,000명 이상의 아이티인들이 살해되었다.⁶⁾ 미 해병대는 중국, 러시아 그리고 북아프리카 등으로 파병되었다 -요약하자면, 미 제국주의가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출동한다.

6) Joel Andreas의 삽화가 수록된 *Addicted to War: Why US Can't Kick Militarism*(Oakland: AK Press, 2002)를 참고.

아시아의 학살현장

우리는 역사를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 지난 반세기동안 아시아에서, 미국은 역사학자들이 냉전 기간이라고 부르는 이 기간 동안 미 본토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의 국지전에서 8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학살해 오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단 3년 만에, 약 500만의 한국인이 사망했는데, 그중 절대 다수가 선량한 민간인이었다. 비록 도시들이 잿더미로 변하고 미군이 생물학 무기를 사용했어도, 미국은 이러한 것들은 인정하지도 또 사과하지도 않을 것이다. 대신 미국은 인도차이나로 장소를 바꾸어서, 300만 명 이상을 학살하고 100만 명이 넘는 부상자와 난민을 양상하면서, 역사상 사용된 화력의 총량보다 더 많은 화력을 사용하였다. 완곡하게 표현하여 Agent Orange라고 불리는 화학 무기(고엽제)는 체계적이었고 치명적이었다. 2000만 갤런(1갤런=3.7856리터)이 넘는 Agent Orange가 베트남에 살포되었다⁸⁾. 남부 베트남에서의 민주들의 잘못이라고는 오직 자신의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운 사람들에게, 미국은 1인당 1000파운드(1파운드=약 453그램)이상의 폭탄을 투하했고 1갤런의 Orange Agent 살포했으며 40파운드의 네이팜탄과 1톤의 CS 가스를 사용했다⁹⁾. 아시아에서의 이 두 번의 전쟁에서 1인당 살상율은 중앙 아메리카에서의 전쟁보다 1000배이고, “냉전”중에 미국이 개입했던 다른 전투보다 200배를 훨씬 상회한다.

이러한 극악무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역사를 고찰해 봐야 한다. 앞서 언급이 되었듯, 1945년에 일본과 독일은 빠르게 미국의 새로운 우방으로 변했다. 일본에서 실시하기로 계획되었던 전시점령은 한국으로 옮겨왔고, 최소 100,000애국자(어떤 이는 100만 정도 된다고 한다.)들은 1950년 6월 한국전이 발발하기 전에 반도 남단에서 학살당했다. 미군정 치하에서 1948년 자행된 제주학살은 총 인구 700,000명중에서 30,0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냈다. 여수에서 14연대와 미군에 의해 조직되고 무장된 다른 남한의 군대가 조직되었으나, 이들의 총구는 미국에 의해 지원 받고 있던 체제에 돌렸다. 미군장교 제임스 하우스만(James Hausmann)은 여수, 순천, 구례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다른 곳에서 민중들의 봉기에 대한 양갈음을 하면서, 이승만 정권 하에서 자행된 봉기에 대한 진압을 실시하였다. 학살은, 미군 문서에 따르면, 군인들이 사람들을 죽이는데 이력이 날 정도로 지쳐버린 곳이라고 불평한, 지리산으로 옮겨서 본격적으로 실행되었다.

앞서 언급이 되었듯, 독일과 남한에서 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나치와 일제부역자들은 미군에 의해 재 동용되었다. 이는 나치 정보부 관리, 독일 로켓과학자 그리고 일본

7) 한국과 중국에서의 생물학적 무기에 대한 국제과학위원회, *Report*, 1952.

Koreatruthcommission@yahoo.com

8) 믿을 수 없지만, 살포된 다이옥신의 양에 의해 절반으로 축소되어 발표되었다고 BBC는 보도했다. <http://news.bbc.co.uk/2/hi/americas/2954729.stm>. "어떤 베트남인은 정상인보다 체내 다이옥신 축적량이 200배나 된다고 연구에 의해서 밝혀졌다."

9) *Vietnam Documents: Vietnam and American Views of the War*(New York: ME Sharpe, 1992)

의 세균전 전문가들이 미군의 관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람들 중에서, 가장 악랄한 사람은 일제황군 731부대 소속의 이시이 시로(Ishii Shiro) 대령이다. 그가 미군과 영국군을 포함한 수천 명의 전쟁포로들을 대상으로 세균전 실험을 감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시이 대령은 그의 죄를 사면 받았다. 그는 미국을 여행하였고 한국전 당시에는 남한을 방문하기도 하였으며, 다른 731부대 관리들이 그랬던 것처럼 일생을 부와 명예를 누리면서 살았다¹⁰). 수천 점의 사진자료와 수십의 인터뷰 자료를 교환하는 조건으로, 전범 이시이 대령과 그 일당들은 1946년 맥아더(Gen. Douglas MacArthur)에 의해 사면을 약속 받았고, 1947년 정부로부터 형집행에 대한 사면을 받았다¹¹). 미군 포로들은 매일 실시된 세균주입 주사를 비롯한 이시이 대령에 의해 자행된 만행을 발설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당했다. 731부대의 임무에 대한 서류박스들은, 국회조사위원회가 발족되기 전에, 미군에 의해 일본으로 이송되었다. 결과적으로, 맥아더의 조력자 역할은 한 “HQ파일 완전검색(complete search of HQ files)”은 조사자들에게 일본의 세균전에 대한 어떠한 단서도 제공하지 않도록 하였다¹²). 1951-53년 회계 연도 당시, 미국은 한국전 당시 한국에서 사용될 목적으로 345,000,000달러 이상을 생물전 연구비용으로 투자하였다¹³). 그 당시 미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세균전 무기 사용에 대한 일체를 부인하였으나, 노벨상 수상자인 조지 왈드(George Wald)가 1979년 미국이 세균전 무기를 사용한 것으로 결론 내린 것처럼, 산더미처럼 많은 증거들이 미국 정부의 주장을 반박한다.

한국전 발발 이후 일주일 채 되지 않았을 때, Earl Stevenson 위원회는 세균전 무기 사용을 주장하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한국전 당시 미 공군은 일본 히로시마의 406부대가 매달 20,000마리의 흰색 쥐를 필요로 하였고, 페스트, 콜레라, 탄저병, 장티푸스 그리고 이질균에 샘플이 사용 가능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1952년 3월 31일 국제 민주 변호사 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Democratic Lawyers)는 단순히 한국전에서의 세균전 무기 사용에 대해 국한하지 않고 미국을 기소하였고, 1953년에는 국제 과학 위원회(International Scientific Commission)는 한국전에서의 세균전 무기 사용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였다¹⁴). 더군다나 화학전 무기 또한 사용되었다. *New York Times* 1952년 8월 18일자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전에서 2차대전 당시 사용되었던 네이팜탄의 양보다 5배 더 많

10) 미국/일본의 생물학 무기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Hal Gold의 *Unit 731: Japans Wartime Human Experimentation Program* (Tokyo: Yenbooks, 1996); Sheldon H. Harris, *Factories of Death: Japanese Biological Warfare, 1932-1945, and the American Cover-Up* (London: Routledge, 1994); 과 Stephen Endicott and Edward Hagerman의 *The United States and Biological Warfare* (Bloomington: Indianan University Press, 1998)를 참조.

11) Harris, p. 118.

12) *New York Times*, 1949년 11월 27일, p. 16.

13) Endicott and Hagerman, op. cit., p. 48.

14) 1960년대 미국은 남한, 오키나와, 이집트 그리고 라이베리아에서, 결과적으로 동남아시아에서 사용된 기술을 점검하면서, 생물학 무기를 실험하였다. 미국 정부는 1962년 록키산맥에 위치해 있는 콜로라도의 무기고에서 실험을 실시하였는데, 당시 일본군 고위장교는 접근이 자유로웠던 반면, 주지사 John Love 는 기지에 대한 접근 자체가 거부되었다.

이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1950년대부터 미국은 북한에게 핵무기 사용에 대한 위협을 시작하였다. 오늘날 이라크에서 포로들을 고문하고 학대하는 것처럼, 미국은 한국에서 관행적으로 도시를 폭격하였고 피난민들에게 발포를 하였다. 요약하자면, 미국은 한반도 민중의 독립과 통일에 대한 열망을 좌절시키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했으며 지금도 그러한 노력들은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 1976년부터 1993년까지 실시된 “팀 스피리트 훈련 Operation Team Spirit”은 북한에게 침략과 핵전쟁에 대한 위협을 주었다. 핵무기를 투하할 수 있는 미군 폭격기는 38선을 매일 접근하면서 월북 일보 직전에 항로를 바꾼다. 북한의 민중들에게는 미국의 핵공격이 수십 년간 지속되고 있는 엄연한 현실로 인식되고 있다. 1980년대와 90년대 북한 미국에 의한 도발행위가 연평균 7900차례를 기록한다고 발표하였고, 미국 역시 북한에 대한 매일 실시되는 고도 감시 비행 사실을 인정하였다. 휴전 이후 현재까지 EC 121첩보 비행기를 포함한 최소 10대의 미군 비행기가 북한에 의해 격추되었다. 2003년 3월 미국은 12대의 B-52폭격기와 동수의 B-1 폭격기를 북한을 사정거리 안에 두고 있는 궤에 배치하였다.

미군은 남한에서 국군통수권을 수행하고 있다. SOFA협정에 의거해서 미군은, 한국인에 대한 수천 건의 범죄에 대해 처벌을 받지 않거나 경미하게 처벌받으면서, 한국법정의 기소를 면제받고 있다. 1980년 수천 명의 인명이 살상된 광주민중항쟁에서, 미국은 항쟁의 진압에 대한 무력 사용을 재가하였다.

비록 대부분의 미국인들에게 앞서 언급된 역사적 사건은 망각되었거나, 기껏해야 먼 과거의 사건으로 치부된다. 마치 전염병처럼, 미국의 군국주의적 광기는 현재 전지구적 현상이 되었고, 군수품시장으로서의 동아시아의 중요성은 급격히 증가하였다. 냉전 종식이 후 미국의 무기수출량은 1989년 80억 달러에서 1991년 400억 달러로 증가하였고, 전세계 군비중 동아시아의 무기수입 비중은 11.4%에서 31.7%로 세배나 증가하였다. 1988년 미국 무기수출량 중 10%만이 이 지역으로 유입되었다. 1997년까지 미국의 동아시아 무기 수출량은 25%까지 증가하였다¹⁵⁾. 국방부 무기담당 책임자 김국훈(육군 소장)은 핵무기 보유국 하고 있거나 핵무기 실험인 전 세계 17개국 가운데 7개국, 미사일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는 28개국 가운데 17개국, 화학무기 보유국 16개국 가운데 10개국 그리고 생물학 무기 보유국 13개국 중 8개국이 아시아 태평양지역에 위치해 있고 전한다¹⁶⁾.

일본의 군국주의의 부활로 인해, 일본의 군비 지출은 5조 엔을 육박하면서 미국에 이어 2위에 달하고 있다. “평화”와 “인도주의적 지원”이라는 명목 하에서, 일본은 1945년 이래로 금지된 국제사회에서의 군사력 배치를 시작하였으며 핵무기 개발의 위협까지 가하고

15) Tim Huxley and Susan Willett, *Arming East Asia*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Oxford University Press, 1999) p. 23.

16) Michael Richardson, Fears spread that other Asia nations will seek nuclear arms,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June 6, 2002, p. 5.

있다.

제국주의적 십자군

여기에서 주된 쟁점 자본주의적 세계체제의 팽창이 군사주의적 광기와 현대사회 전쟁의 불순함의 근본원인이라는 점이다. 2세기 동안, “계몽”의 가치에 의해 행동하였던 진보적 사상가와 정책입안자들은 체제의 가장 효과적인 팽창을 주도하고 있다. 제 3세계에서 민주주의의 확장은 보다 계몽된 정책과 모든 인류에 대한 생활의 질을 고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인습적인 금언은 명백히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미국혁명과 프랑스혁명은, 민족국가 내에서 군사력을 강화하면서 그리고 소수의 거대 기업과 은행의 수중의 전 세계적 부를 집중시키면서, 유럽에서 발생한 체제를 전 세계적인 지배의 구조로 만드는 것을 촉진하였다.

북반구의 정치적 민주주의 확대의 동력은 남반구의 증가된 착취를 의미한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베트남의 프랑스 식민주의자들은, 그들이 미국에 선물한, 자유의 여신상 복제품을 하노이의 Le Loi의 탑 위에 세우는 생생한 예를 보여주었다. Le Loi는 몽골인들이 1418년 베트남을 침공했을 때 몽골을 격퇴한 국가 지도자였다. 오늘날, 영국의 아더왕 전설과 비슷한, 그는 자신과 관련된 다수의 신화가 있을 만큼 국가적 영웅으로 간주되고 있다. 자유의 여신상을 Le Loi의 탑 위에 세우는 것은 명백히 베트남인들을 모욕하는 것이고, 프랑스혁명 원리의 공간적 팽창이 어떻게 제 3세계를 무참히 공격할 수 있는가를 증명한다.

프랑스 식민주의는, 인도차이나 반도사람들이 방대한 고무나무 플랜테이션의 비료를 죽은 사람의 사체로 사용했다고 회상할 만큼, 잔인하고 치명적인 것이었다. 파시즘에 대항한 전쟁 중 베트남을 수탈한 프랑스의 착취는 더 악랄해졌다. 1944년부터 45년까지 지속된 기아로 인하여 인구 1400백만 이하의 북베트남에서 150만에서 200만에 달하는 사람들이 아사하였고, 프랑스로 싣 수출할 때 프랑스의 양조산업이 급속히 발달했다. 미국의 대중문화 속에서 대통령 John Kennedy는 “카멜롯 Camelot”으로 연상되어지고, 자신의 아름다운 아내와 함께 기억된다. 비극적으로 미국 역사상 가장 “자유주의적”인 대통령인 그가 베트남에서 고엽제(Orange Agent)의 대량투하를 지시했던 장본인이다. 유사하게 프랑스혁명의 가장 강력한 팽창주의자가 자신들을 프랑스혁명의 적자로 간주했던 견고한 진보주의자였다. 그들은, 마치 케네디와 그 행정부 각료들이 자신은 미국혁명과 Manifest Destiny의 유산에 대한 전통을 전달하는 존재로 생각했던, “계몽된” 자유주의자들이었다.

프랑스혁명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인해, 프랑스는 질서와 문명화된 사회를 만든다는 명목 하에 알제리 노예와 무정부상태에 대한 십자군 파병을 주장했으며, “야만적”이고 “계몽되지 않은” 오스만제국에 의해서 개척되지 않은 영토를 포함하여 아랍의 공동체주의적 촌락을 파괴하였다. 이슬람 문명이 우세할 당시에는 유전적 씨족과 가계토지는 토지의 매매를 불가능하게 하면서 서로 분리될 수 없었다. 그러나 프랑스가 통치한지 50년이 지난

후부터는 대규모 사유지가 출현하였고 기아는 알제리를 비참하게 만들었다.

문명과 자유민주주의의 미명 하에, 영국은 수세기 동안 지역 문화를 가능하게 만들었던 인도의 촌락토지의 집단적 소유제도와 페르시아 그리스, 스키타이, 아프카니탄, 타타르족과 몽골의 침략에도 지탱을 해 오던 구조를 파괴해 버렸다. 영국의 계몽주의 하에서 대량 소유지는 탄생하였고 농민들은 소작농으로 전락해버렸다. 1867년 최초로 영국자유주의의 결실이 나타났는데, 이는 인도의 Orissa 지역에서만 100만명 이상이 아사하는 사건이었다. 이러한 기아로 인한 대량 아사는 유럽의 가치로 보았을 때 “후진적인” 전통의 인도에서는 거의 드문 것이었으나, “민주적” 자본주의의 지형적 확장을 통한 유럽 민주주의의 “계몽된” 자유주의로부터 유래한 것이다.

이러한 역사의 교훈은, 백악관에서 그 누가 집권을 하든지, 문제는 사람이 아닌 시스템이 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미국의 가장 근대적인 대통령은 이러한 관점을 예시한다. 카멜롯으로 낭만화된 JFK의 통치 기간은 평화와 번영 그리고 낙관주의와 희망의 대표자로서 간주된다. 그러나 그는 베트남에 고엽제 살포에 대한 재가를 함으로써, 화학무기 사용을 재가한 국가의 지도자인 사담후세인과 같은 부류의 존재를 만든 결과를 초래했다. 실제로 후세인이 자행한 할라바(Hallabja) 학살은 JFK의 그것에 비하면 약과이다. JFK는 일회성 공격이 아닌 수년간에 걸친 화학무기를 사용함으로써 수천 명의 사람들을 살상함과 동시에 불구로 만들었다. 미국의 Pig만(The Bay of Pigs) 침공으로 인해 촉발된 쿠바 미사일 사태동안 핵전쟁의 일보직전까지 갔었다. 북한의 핵전쟁 억제력 개발에 대한 부시정권의 핵전쟁위협은 JFK의 쿠바억압의 전철을 밟는 것이다. JFK가 핵무기 시대의 먼로독트린(Monroe Doctrine)을 실시한 것이라면, 부시는 이것을 전 세계에 적용시키는 것이다.

문명이나 혹은 야만이나?

이 글에서 가장 “계몽”된 형태인 유럽의 자본주의적 “자본주의”가 체계적으로 원주민들을 학살하였고 또 군사주의를 주된 작동원리로서 필요로 하게 만든 집중화된 세계체제를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고찰했다. 이것이 단순히 과거의 사실이라면,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들은 과거 그 어떤 때보다 더 강력하다. UN에 따르면, 1990년대 1억 명 이상의 5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설사, 백일해, 파상풍, 폐렴, 홍역과 같이 값싼 예방주사나 깨끗한 물만으로도 예방할 수 있는 질병에 의해 사망한다. UNICEF 제 3세계의 5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쉽게 예방할 수 있는 질병으로 매일 30,000명 이상 사망한다고 추정하고 있다¹⁷⁾. 2001년 코피 아난(Kofi Annan)은 매일 24,000명의 인구가 기아로 사망한다고 발표했다¹⁸⁾. IMF의 긴축정책이 제 3세계의 임금을 폭락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많은 나라의 GNP를 감소시키는 동안, 모두 합쳐서 10억 명의 사람들이

17) “UN에 따르면 필요없이 수백만의 어린이들이 죽는다”라고 Elizabeth Olson이 보도했다, *New York Times*, March 14, 2002, p. 13.

18) 코피 아난은 “기아에 조치를 취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International Herald-Tribune*, June 11, 2002.

연대기적으로 영양실조의 상태에 있다. 전 세계 70%의 부가 전 세계 인구의 20%에 손아귀에 놓여있는 동안, 인구 10명 중 한 명은 기아와 영양실조에 신음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자유주의적 가치의 공간적 확장으로 인해, 2차 대전이 일어나기 40년 전에 희생된 인구보다 2차대전 이후 40년 동안 살상된 인구의 수가 4배 많다. 1992년부터 2002년까지, 전 세계의 총수입은 연평균 2.5%에 달하게 증가하였으나 빈곤층의 수는 1억 명 증가하였다. 100대 부자 중에서 51개체가 국가가 아닌 회사들이다. 세계 상위 1%의 수입이 하위 57%의 수입량과 동일하나, 그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¹⁹⁾. 세계에서 한해에 1조 달러를 군비에 지출하고 있을 때, 성인 3명 중 한 명은 문맹이고 4명 중 한 명은 굶으며, AIDS는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며 지구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만큼 지구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의 부조리와 비극은 주변부 사람들의 끔찍한 곤경에 대한 중심부사람들의 부유한 사람들의 깊은 무관심과 몰이해로 인해 더욱 더 불합리하고 비극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정세 속에서는 지속 가능한 평화란 있을 수 없다. 지구상에서 비참한 사람들, 세계체제 내에서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은 비인간화되고 테러리스트로 낙인찍히고 의사결정의 과정에서 배제 당하는 한, 그들이 정의를 찾을 때까지 반란을 일으키고 전쟁을 수행하는 것 외에 대안을 찾을 수 없다. 이러한 비합리적인 체제를 수정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임무는 문명이 무엇인가를 재정의하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문명이라는 것이 10억 명 이상의 비참한 인류가 증가하는 지구적 집중화와 초국적 기업, 군사화된 민족국가 그리고 국제적 악의 축이라는 지옥에서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음을 알고 있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 “문명”이라는 것이 인간미를 고갈시키고 전통문화를 통째로 파괴시키고 지구적 자원을 약탈하는 것임이 분명해졌다.

단기이익에 기반을 두고 있는 정제체계의 구조적인 폭력은 모든 평화운동과 정의를 위한 운동이 행동을 해야할 커다란 위기이다. 만약 위에 언급된 현 체제의 비합리성이 수정된다 할지라도, 체제의 구조적 모순들이 필연적으로 다른 영역으로 전이될 것이다. 거대한 사회적 부가 효율과 이윤의 “계몽”과 “합리”의 원칙에 의해 지배당하는 한, 인간성의 방대한 사회적 부의 건설적 사용이기는 생명의 잔인한 퇴락과 자연 생태계의 무한한 파괴 그리고 군사주의는 반드시 존재할 것이다. 소수의 초국적 자본은 비 민주주의적 방법과 소수의 이익만을 위해서 사회적 부를 통제하고 있다. “계몽”된 신 자유주의적 경제 논리에 따르면, 이러한 초국적 자본은 성장하거나 고사할 것이다. 오직 세계체제의 근본적인 재정비만이 생태계적인 생명-세계로 인도할 수 있다. 그것은 인류의 사회적 거대한 부를 탈 중심화하고 자율통제를 통해서 조절하는 사회이다.

19) Arundhati Roy의 Not Again, *The Guardian*, September 27, 2002. 참조.